

## 18세기 한문 산문 연행록 속 '풍속' 요소의 인지와 범주\*

김 현 미\*\*

<目次>

I. 서론	1. 김창업 「산천풍속총록」
II. 18세기 이전의 풍속 요소 인지	2. 이의봉 「산천풍속총론」과 김조
III. 개인 산문 연행록의 풍속에 대한 발견	「민속잡기」의 경우
	IV. 결론

<국문 초록>

이 글은 조선 후기의 중요한 문화적 文獻群으로서 존재하는 燕行錄의 주요한 내용 중 하나인 '風俗'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개를 살피기 위한 첫 시도로 쓰여 졌다. '풍속'은 기본적으로 타 문화를 체험한 기록이라는 상황적·내용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연행록의 저자들에게 중요한 관찰 및 묘사 대상이 되면서, 연행록을 읽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하는 내용적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풍속'은 '문헌군'이라는 이름 아래 다양한 성격의 텍스트를 포괄하고 있는 연행록을 '타문화 관찰 및 체험 텍스트'라는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선 '풍속'이 왜 18세기에 새로운 표제로서 나올 수 있었는가를 사행 기록의 전통 하에서 생각해보기 위해 이전 시기인 '대명 사행록' 속의 풍속적인 요소가 어떻게 등장하고 무엇을 중심으로 소개되었는가를 살펴본 후, 18세기 연행록 중 잡지 양식의 24개 연행록 중에서 일단 '풍속'이라는 개념의 총합적

\* 이 글은 2016년 8월 19일 한성대에서 열린 동양고전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연행록 속 풍속 요소의 인지와 범주"라는 글을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토론을 맡아 논고 작성에 도움을 주신 한중연 김지현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 융합연구센터 전임연구원 / kyntoo@hanmail.net

이해와 전개 양상을 보기 위해서 풍속이라는 표제 하의 서술들을 분석하였다. 대명 사행 문학의 전통에서 형성된 풍속 요소의 서술 방식은 임금께 복명하기 위한 ‘문건 별단체’인 잡록 형식이었으며, 내용적으로는 문화적인 자부심을 표출하기 위해 언급된 ‘상례’의 발견과 지리적 요소와 긴밀히 연결된 풍속의 서술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18세기 연행록 중 ‘풍속’을 표제로 하여 단편서술 양식을 모아놓은 세 개의 기록, 즉 노가재 김창업의 『연행일기』(1712) 중 「산천풍속 총록」, 그리고 이의봉의 『북원록』(1760) 소재 산천풍속 총론, 김조의 『관해록』(1784)에 수록된 「민속잡기」의 기록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바라본 새로운 세계인 ‘청’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었고 그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폈다. 우선 노가재의 산천풍속 총록에 수록된 72개의 항목들은 이전 시기 대명사행문학에서 소개되었던 상례와 지리 지형적인 요소를 포괄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양식인 의-식-주 영역을 고르게 소개하면서도, 이전시기 별단체 잡록처럼 나라의 경영을 위한 정보로서 작가의 목표를 삼지는 않았다. 이상봉의 산천풍속총론 속 118개의 항목들은 18세기 초 노가재가 관찰하고 겪은 결과의 타국 풍속을 기반으로 받아들이고 이러한 기초지식 위에서 자신의 관찰 결과를 더하여 타국 풍속의 관찰을 했다. 1784년 연행의 결과로 민속잡록을 남긴 김조는 30항의 기록 중에서 일반적인 ‘풍속’이 아니라 그곳의 인물을 중심으로 여정에 따른 자신의 경험과 관찰에 근거한 ‘민속’의 항목을 서술하였고, 그래서 자신의 감정과 감상이 보다 많이 투영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풍속, 18세기 연행록, 의식주, 관혼상제, 별단(別單), 노가재연행일기, 북원록, 관해록, 타문화 체험

## I. 서론

이 글은 조선 후기의 주요 문화적 文獻群으로서 존재하는 燕行錄의 주요한 내용 중 하나인 ‘風俗’<sup>1)</sup>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개를 살피는 연속

1) 여기서의 풍속은 현재 통용되는 사전적인 뜻, “특정한 시대, 특정한 사회의

작업의 시작점으로 기획되었다. ‘風俗’은 기본적으로 타 문화를 체험한 기록이라는 상황적·내용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연행록의 저자들에게 중요한 관찰 및 묘사 대상이 되면서, 연행록을 읽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하는 내용적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풍속’은 ‘문헌군’이라는 이름 아래 다양한 성격의 텍스트를 포괄하고 있는 연행록을 ‘타문화 관찰 및 체험 텍스트’라는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최종 목표를 가지고 있는 이 글이 본격적으로 ‘풍속’을 다룬 연행록의 내용들에 접근하기 이전에 생각해야 할 요소들이 몇 가지 있다. 우선 조선 후기의 중요한 문헌군으로 발견되고 그 개념이 형성된 ‘연행록’이 어떠한 전통과 상황 하에서 형성되었는지 하는 것이다. 연행록은 글자 그대로 풀면 ‘燕京에 간 기록’이며, 전술했듯이 해외 체험을 전제로 하게 되는 기록이다. 조선시대의 특성상, 해외 체험은 우발적인 사고에 의한 표류나 포로체험이 아니고서는 대상국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던 현실이다. 또한 그 대상국에 가는 명분도 使行이라는 외교행위로써 정해져 있었고 그 결과의 報告性 記錄物을 내야하는 전통이 있었기에, 연행록은 발생상 ‘해외 체험’, ‘復命’의 기록화라는 상황적·기록 방식적 특징을 그 기저에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주지하듯 연행록은 대상국이 ‘청’나라가 되는 對淸使行의 기록부터 사용된 명칭이며 그 이전의 사행 기록들은 ‘朝天錄’, 즉 천자의 나라에 조회 간 기록이라는 명칭이 주류를 이룬다. 이러한 명칭 변화는 기존 연구에서 언급되었듯 연행 대상국이 ‘천자의 나라’에서 ‘청의 수도 연경’이라는 구체적 지명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연행 주체들의 대상국 정체성 인식에 대한 고민을 시사한다는<sup>2)</sup> 의미가 있었고, 이를 통해 연행록

생활 전반에 걸친 남다른 습관(習慣)이나 습속(習俗).”(『고려대학교 한국어대사전』)과 결과적으로는 비슷할 것으로 보이지만, 연행록 저자들이 과연 어느 범주까지를 풍속이라고 생각하였는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며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문화’와 ‘문명’의 범주와 양상을 생각해볼 것이기 때문에 ‘내용적 요소’라는 다소 모호한 표현으로 지칭할 것을 밝혀둔다.

저자들이 연행록을 쓰게 만든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대상국’, 즉 새롭게 보게 된 다른 세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復命<sup>3)</sup>이라는 요소를 전제로 하는 사행록의 창작 전통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사행록의 창작 전통에서 ‘새롭게 보게 된 다른 세상’을 누구에게 설명하느냐 하는 문제가 대상국의 특징적 요소를 서술하는 태도와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즉 사행록의 公的 창작 원인인 ‘임금께 보고’하기 위한 대상국의 특징 서술 양상 및 태도와 개인적 저술의 차원에서 ‘일반 독자에게 이야기’하는 대상국의 특징 서술 양상 및 태도는 다를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대명사행 - 대청 사행 기록 속의 지속적인 핵심 요소인 ‘타문화 관찰 및 체험 텍스트’의 공통 기반 하에서 단순한 왕조 교체, 혹은 세월의 변화에 의한 서술 내용의 차이가 아닌, 타국 문화의 이해에 대한 창작자의 시각 변화와 같은 유의미한 요소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18세기 對淸使行의 결과로 지어진 개인적인 (한문) 산문 연행록 속에 소개된 타국의 모습들이 ‘풍속’이라는 標題 下에 집적되어있는 것을 우선 읽어보고 그 범주와 인지 양상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특히 ‘풍속’이 왜 18세기에 새로운 표제로서 나올 수 있었는가를 사행 기록의 전통 하에서 생각해보기 위해 이전 시기인 對明使行錄 속 풍속적인 요소가 어떻게 등장하고 무엇을 중심으로 소개되었는가를 살펴본 후, 18세기 연행록 속의 풍속 표제 서술들을 분석할 것이다.

2) 김현미, 「18세기 연행록 속의 병자호란」, 『국어국문학』 140, 국어국문학회, 2005, p.122.

3) 復命 : 어떤 일의 결과를 그 일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이 보고한다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특히 사행과 관련해서는 사행의 결과를 서장관이 임금께 보고하는 의미로 쓰였다.(『고려대학교 한국어대사전』)

## II. 18세기 이전의 풍속 요소 인지 : 對明使行文學 속의 '풍속' 관련 서술

중국의 명(1368~1644)은 조선 전·중기까지 존재하면서 朝鮮의 외교 주대상국이 되었고, 대명 사행기록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총 1219여 회, 1년 평균 약 4.9회의 대명사행<sup>4)</sup>을 행하면서, 조선은 외교 의례 뿐 아니라 필요 문서와 기록을 담당하는 역할인 書狀官을 三正使 기구 내에 조직하였다. 그는 공적 기록으로서 사행 기간 동안 날마다의 사건을 기록하여 승문원에 啓下하는, 조정에 공식적 제출하는 臚錄을 작성해야 했다. 등록의 내용을 개괄해보면 외교사절로 임명되는 순간부터 각종 외교방문 준비 사항, 사절단 구성, 사행 노정기록, 노정 상 등장하는 지역과 장소에 대한 관찰 및 견문, '중국의 다양한 풍습과 생활양식에 대한 목격담' 등 당시 사행을 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기록을 상세히 담고자 하였다고 한다.<sup>5)</sup> 즉 등록의 주 내용 중에 타국 풍속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등록의 기록 중에서 외교 방문 준비 사항이라든지 사절단의 구성 등을 생략한 채 서장관이 북경을 다녀와서 보고 들은 것, 특히 문물제도들을 조목별로 기록하여 왕께 보고하는 '문견기록별단'이 조선왕 조실록에서도 보여<sup>6)</sup>, 사행 기록의 전통에서 타국 문물제도에 대한 서술

4) 김지현, 「조선시대 대명 사행문학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논문, 2013, p.12.

5) 김지현, 앞의 논문, 2013, p.14.

6) 문견별단은 선조 이후 조선 후기까지 꾸준히 실록에 등장하는데, 서술 방식을 알기 위해 『정조실록』 14년 경술(1790, 건륭 55) 3월 27일 서장관 성종인이 올린 것을 제시한다. “소대(召對)가 있었다. 사행(使行)을 마치고 돌아온 서장관(書狀官) 성종인(成種仁)을 소견(召見)하였다. 종인이 ‘문견 별단(聞見別單)’을 올렸는데, 그 내용에, “1. 저 지역의 농사 상황은 작년 여름과 가을이 바뀔 무렵에 오래 계속된 장마가 농사를 손상시킨 결과, 요양(遼陽) 이동 지방은 수확할 것이 전혀 없는 땅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야흐로 관청에서 은(銀)을 내어 구제하고 있습니다. 심양(瀋陽)에서부터 산해관(山海關)까지는 요동(遼東)에

이 어떠한 서술방식과 내용 구성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관찰할 수 있다. 이것은 조말생(1370~1447)이 북경을 다녀와서 보고 들은 것을 조목 별로 기록하여 계문한 것에서 시작한다.<sup>7)</sup> 이러한 별단의 조목별 서술방식은, 詩를 통해 풀어낼 수 있는 개인의 감회와 정서와는 거리가 있는 내용이며 보고 들은 ‘사실’들을 개별 정보의 형태로 생성하고 그를 전달하는데 더욱 효율적이다. 聞見別單들 중 서장관이라는 임무를 띤 자의 공문서로서 간주됨을 넘어 ‘대명 사행 문학’의 전통 속에서 한 작가의 저작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선행 연구에서 있었는데 1574년 작성된 質正官 趙憲의 『동환봉사』와 1587년 작성된 書狀官 黃璣의 「見聞事件別錄」<sup>8)</sup>이다. 선행연구에서 이들의 작품 양식은 모두 ‘잡록’으로 분류되어, 타국의 풍속에 해당하는 내용의 서술방식은 잡록의 형태로 서술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청 사행 기록인 연행록의 이전 시기에 나와서 사행기록의 전통을 형성한 대명 사행기록에서 명의 ‘풍속’에 대한 내용은 어떠한 것

비해 약간 나는데 그래도 산해관 너머 지역보다는 못합니다. 울부짖으며 걸식하는 기민(飢民)들이 연경(燕京)에 이르기까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의 모진 추위로 황성(皇城) 안에서 얼어죽은 자가 매우 많았습니다. 생각건대, 근본인 썩은 이 지역에 살 곳을 잃은 백성들이 많이 있는 것은, 비록 흉년으로 인한 기근 탓이라고는 하지만, 또한 구제 정책에 있어 적절한 방도를 취하지 못한 까닭인 듯도 합니다.(丁未/召對, 召見回還書狀官成種仁, 種仁進聞見別單曰: 一, 彼地年事, 昨年夏秋之交, 久澇傷稼, 遼陽以東, 殆同赤地, 方自官散銀賑, 自瀋陽至山海關, 比遼東稍勝, 而猶遜於關外, 飢民之號丐者, 至燕京相續, 昨冬酷寒, 皇城内凍死者甚衆, 惟此根本之地, 多有失所之民者, 縱云飢饉之所致, 亦似接濟之乖方.)”

- 7) 이규익, 『연려실기술』 대조 보충본, “국초에 조말생(趙末生)이 서장관으로서 중국 서울에서 돌아와 견문을 기록하여 특별히 조목조목 아뢰었는데 서장관 별단(別單)이 이로써 시작되었다.(國初, 趙末生以書狀官, 回自京師, 具耳目所觀記, 別爲條啓, 書狀官別單始此.)”
- 8) 동환봉사 같은 경우에는 1621년 은봉 안방준이 찬술하여 간행되었다가 후대 후손에 의해서 중봉 문집에 편입되었고, 연행록 전집(동국대학교 편) 권3에 실렸다. 황진의 견문사건별록은 황진의 사행록 문집인 『西潭遺稿』(국립중앙도서관 고서)에만 실려 있고 연행록 전집에는 실려 있지 않은 것을 김지현의 박사 논문에서 대명 사행 문학의 대상으로서 비정하였다. 김지현, 앞의 논문, 2013, pp.33-34.

이 취택되어 기록되었을까? 대명 사행문학을 총괄하여 목록화하고 그 전반적인 전개와 특성을 살핀 선행 연구에서는 크게 3기로 대명 사행문학의 흐름을 구분하는데, 조선 건국서부터 연산군대인 1기(1392~1504)/중종반정 직후 임진왜란 직전까지인 2기(1505~1591)/임진왜란 발발부터 명나라와 외교를 단절하게 되는 3기(1592~1637)이다.<sup>9)</sup> 세 시기 공히 주 내용으로서 저자들이 겪은 명의 새로운 생활 방식과 문물들을 언급하는데,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예의의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라 제왕의 도움을 유람하였다. 그 산하와 성곽의 웅장함, 주거, 인물의 풍부함. 예악, 문헌의 웅장하고 화려함과 광경 풍속의 통창하고 광대함이 눈에 닿은 것이 있으면 곧바로 마음에 응하고 마음에 응한 것이 있으면 곧바로 글에 발휘되어 (후략)<sup>10)</sup>

이 글은 점필재 김종직이 성현의 『觀光錄』을 보고 쓴 글로서, 성현은 1472년 진하사인 형 성임을 따라 북경에 다녀오며 동료들과 수창했던 시를 모아놓은 책에 대한 서문이다. 점필재는 성현이 주로 쓴 내용들을 서술하면서 유람의 대상으로서 산하/성곽, 주거/인물, 예악/문헌과 함께 광경/풍속을 언급하고 있어서, 사행 문학의 저자 성현이 시에서도 그가 만난 새로운 나라인 명에서 본 삶의 방식과 문물을 주 내용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 함께 언급된 산하, 성곽, 주거, 인물, 예악, 문헌, 광경 등의 단어와 비교하여 여기에서 쓰인 '풍속'의 구체적인 의미를 추론해 보면 자연적 환경, 그 나라의 물질적, 정신문화적 산물과는 변별되는 일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대구(對句)의 구사를 자주 사용하는 한문 산문의 운용상 유의미한 변별적 단어의 배치라고 전적으로 장담할 수는 없지만, 함께 쓴 단어의 특성으로 보았을

9) 김지현, 앞의 논문, 2013, pp.18-42.

10) 김종직, 「跋成磬叔觀光錄後」, 『점필재집』 권2, “其山河城郭之壯, 舟車人物之富, 禮樂文獻之宏麗也. 光景風俗之融侈也. 有觸于目, 卽應于心, 有應于心, 卽發于文.” 김지현, 앞의 논문 재인용, 2013, p.74. 밑줄 필자.

때 길에서 관찰한 삶의 모습을 더욱 나타낸 것으로 짐작되는 것이다.

대명 사행문학 2기의 작품들은 서술방식상 일기체 산문의 개별 작품들이 등장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소세양의 『부경일기』, 소순의 『보진당 연행일기』 등이 그것인데 이는 宋~明代를 거쳐 유기를 습합한 형태의 일기체가 성행하는 동아시아 문단 조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풍속 서술과 관련하여 이들 일기체 조천록의 특징은 일단 국내 여정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면서 평양 의주 등에서 관찰한 삶의 모습들을 서술한다는 것이다. 권별의 『조천록』, 임권 『연행일기』, 허진동 『조천록』에서도 볼 수 있다.<sup>11)</sup> 중국에 들어가서 그들이 주목한 새로운 세계의 모습은, 전술했던 16세기 말 조헌의 『동환봉사』와 황진의 「견문사건별록」 등 이른바 ‘잡록 형식’으로 서술된 곳에서 본격적으로 언급된다. 이해를 돕기 위해 『동환봉사』의 표제와 「견문사건 별록」의 원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먼저 올린 8조의 소[先上八條疏] / [서(序)] / 성묘의 배향[聖廟配享] / 내외의 서관[內外庶官] / 귀천의 의관[貴賤衣冠] / 식품과 연음[食品宴飲] / 사부의 읍양[士夫揖讓] / 사생의 접례[師生接禮] / 향려의 습속[鄉間習俗] / 군사의 기율[軍師紀律] 올리려던 16조의 상소[擬上十六條疏] / [서(序)] / 격천의 성의[格天之誠] / 추분의 효도[追本之孝] / 능침의 제도[陵寢之制] / 제사의 예절[祭祀之禮] / 경연의 규례[經筵之規] / 조회의 의식[視朝之儀] / 간언을 듣는 법[聽言之道] / 사람을 쓰는 법[取人之方] / 음식의 절도[飲食之節] / 회름을 알맞게[飢廩之稱] / 인구의 번식[生息之繁] / 사졸의 선발[士卒之選] / 조련을 부지런히[操鍊之勤] / 성대를 견고히[城臺之固] / 출척을 밝게[黜陟之明] / 명령을 엄하게[命令之嚴]<sup>12)</sup>

② 철갑 또한 몸에 지니기 매우 간편하게 만들어졌으며, 활은 뾰족하게 만들었고 화살은 나무로 만들었습니다만 모두 우리나라 것보다 튼튼하지는 못했습니다. 지름길을 이용해 말을 타고 가는 이를 만났는데 그가 맨 두 개의 활을 보

11) 김지현, 앞의 논문, 2013, p.99.

12) 조헌, 『동환봉사』, 한국고전종합DB.

니 모두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중략)이것을 살펴본다면, 우리나라의 활과 화살을 가지고 사사로이 파는 이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sup>13)</sup>

이를 살펴보면, 두 권 다 자신이 관찰한 타국의 생활방식과 문물제도 등을 '국왕' 이라는 칭자를 상징해 놓고 그가 알면 좋을 것들로 편집해 놓은 것을 알 수 있다. ①조현의 『동환봉사』 같은 경우, 먼저 올린 8조의 소의 항목 제목보다 올리려고 했던 16조의 항목 제목이 더욱 국가 통치자인 왕의 직분에 알맞은 정보를 모아서 제공하는 저자의 편집의도를 알 수 있다. 또한 ②와 같은 서술을 한 황진의 『견문사건별록』 역시 저자가 잡록 형태로 쓴 여러 가지 항목들, 즉 농기구, 벽돌, 소 돼지 양을 기르는 법, 중국인의 생활 풍속 등이<sup>14)</sup> 역시 왕의 국가 경영을 위한 일 사례가 되는 용도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원 자료가 되는 소재들은 결국 그 나라 사람들의 삶의 양식, 그 양식을 구성하는 토대로서의 조건들인 의복, 식품, 주거 등에 관련된 물품들, 즉 풍속임을 알 수 있다.

대명 사행문화 2기에는 또한 저자들의 태도로서 명에 뒤지지 않는 조선의 문화적 자부심 표출이 있다고 지적되는데, 이는 단순한 명 문화와 풍속의 일방적인 소개가 아닌 풍속에 대한 비판적인 서술로 드러난다. 중국 풍속 중에서 조선 문사들의 批判眼을 가장 많이 일으킨 것은 喪禮 풍속이었다. 이에 대해서 조현(1574), 허봉(1574), 정환, 허진동 등이 비판하였고, 아래는 이를 가장 집약적으로 써놓은 황여일(1598)의 상례 풍속 비판론이다.

대개 상례는 거의 없어졌고, 매장에도 법도가 없었다. (중략) 부모나 남편이 죽으면 관을 돌관 가운데 놓아두었는데 어떤 이는 겨우 거적으로 덮는 정도인

13) 황진, 『서담유고』, 「見聞事件別錄」, “鐵甲亦極便, 着之襯身, 弓則以角爲之, 矢則以木爲之, 而皆不及我國之強. 捷途逢一人, 乘馬過去, 見其所帶兩弓, 皆是我國之產也. (중략) 以此觀之, 則我國之持弓矢, 私賣者多矣.” 김지현, 앞의 논문, 2013, p.114 재인용.

14) 김지현, 앞의 논문, 2013, p.114.

경우도 있었고 어떤 이는 임시로 관의 표면에 진흙을 발라들 뿐이었다. 이것은 필시 북쪽지방의 풍속이 오랑개에게 물든 소치일 것이다. 듣기로는 북쪽 지방은 사람과 물산이 드물기 때문에 국초에는 질박하고 근검한 풍속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성화, 홍치 연간에 태평한 시절이 오래도록 지속되면서 질박한 풍속이 교묘해지고 화려해 졌으며, 근검한 풍속이 부화하고 사치스러워졌다. 화려하게 꾸미며 지엽적인 절목이 날마다 더욱 심해짐에 따라, 양생에는 지극히 사치스러우면서도 상사에는 극히 각박하였다. (중략) 나그네가 길가다 알게 된 것이 이와 같은데, 만약 풍속을 잘 살피는 사람이 있었다면 반드시 크게 탄식했을 것이다.<sup>15)</sup>

대명 사행문학의 제 3기에 일어난 주된 서술 양식적 변화는 바로 ‘地理志 樣式’이라 하는데, 상대국의 풍속 기록과 관련해서도 매우 유의미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지리지 양식으로 조천록을 기록하기 시작한 주된 원인은 16세기 문인들의 서적을 통한 중국 강남 체험의 기반이 있는 후, 1621년 후금의 요동 장악 이후 명과의 외교가 끊어질 때까지 육로 사행에서 해로사행으로 노정이 변화된 것이다. 3기 작품 중 풍속 서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작품으로 이민성의 1623년 기록 「朝天錄」을 들 수 있다.<sup>16)</sup> 그는 등주의 지리정보를 서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地理志的 樣式의 순서로 화소들을 배치한다고 한다. ‘1.명칭과 연혁 2.주변 마을과의 거리 3.명승지와 유적·문인의 시구 4.백성들의 풍속’의 순이며, 그 역시 등주에서부터 자신이 묵어간 지역 지리에 대해 북경에 이르기까지 이 순서대로 꼼꼼하게 적어놓았다.<sup>17)</sup> 이렇게 지리지적인 양식을 가진 대명 사행 문학의 서술은 1624년 동지사 서장관으로 사행한 김덕

15) 황여일, 『해일집』 권10, 「銀槎日錄」 1월 13일, “大概喪禮頓廢, 埋葬無法, (중략) 其親其夫死則 出置棺於野田中, 或僅蓋苫薦, 或暫塗棺面而已. 是必北俗習染夷虜之治也. 聞北之人物稀罕, 國初有朴野勤儉之風, 自成化弘治年間, 昇平日久, 朴野變而巧文, 勤儉變而浮奢, 繁文支節, 日以益甚, 而養生極侈. (중략) 行人得於道路者如此, 如有善觀風俗者, 則必爲之長太息矣.” 김지현, 앞의 논문, 2013, p.143 부분 재인용.

16) 이민성, 『경정집 속집』 권1, 「조천록」.

17) 김지현, 앞의 논문, 2013, p.172.

승의 「天槎大觀」, 1626년 동지사로 갔던 남이웅의 「노정기」, 1630년 진위사 정두원의 「朝天記地圖」 등으로 이어진다고 한다. 이를 통해 지리지적 서술 양식을 사행기록의 전통에서 받아들임에 따라 '풍속' 요소와 '산천' 지리적인 요소가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연속적으로 서술됨을 알 수 있다.

이제 이러한 前史를 가지고 있는 사행기록이 그 주요 내용인 다른 나라의 생활 모습, 즉 風俗을 18세기에는 어떻게 인지하고 서술하는가를 살펴보겠다.

### Ⅲ. 개인 산문 연행록의 풍속에 대한 발견 :

#### 김창업의 「산천풍속총록」과 그 이후

18세기 들어서 사행 기록들은 전술했듯이 많은 변화를 겪는다. 일단, 사행 대상국이 달라진다. '天子國'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나라 明에서 '天子國'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라인 淸으로 서술 대상이 바뀌며 명칭도 자연스럽게 '燕行錄'으로 바뀐다. 그리고 사행 기록을 남긴 연행록 작자층이 넓어진다. 즉 사행 후 공무로 반드시 기록을 남겨야 하는 서장관만이 기록을 한 것이 아니라, 기록과 공무의 부담 없이 상대적으로 많은 타문화 관찰을 할 수 있었던 '자제군관'의 기록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며, 삼사였던 사람들도 공적인 보고와 상관없이 자신의 개별적인 기록으로서 연행록을 지음을 알 수 있다.

전술했듯이 18세기 산문 연행록의 '개인 기록성'적 심화라는 성격변화로 인해 이전 시기 산문 사행록의 주요 특징인 보고문서적인 특성과는 거리가 멀어졌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17세기 사행록과 18세기 연행록 사이에서도 공통분모는 있다. 그것은 바로 여행기록들이 주목하고 살핀 내용적 주 대상, 즉 대상국의 다양하고도 새로운 면모와 그 곳 사람들의 생활방식이다. 이것을 곧 풍속이라고 풀어 말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삶의 모습들은 특히 짙막한 에피소드의 형태로서 소개되고는 했는데, 이것들은 연행록의 서술 방식과 관련하여 ‘일기형식’과 대별되는 ‘잡지형식’으로 분류되었다.<sup>18)</sup>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풍속과 관련된 서술을 보다 많이 한 것으로 보이는 잡지 형태의 연행록 목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19)</sup>

구분	사행 연도	제 목	저 자	사행시 역할/색목	비 고
18세기	1712	노가재연행일기	김창업	자제군관	잡지+일록 <b>산천풍속총록</b>
	1720	一庵燕記 一一五	李器之	정사 자제군관	일행과 경로+일록+여정이 군데군데 삽입(참고) 이이명의 연행잡지와 비교참조용
	1720	연행잡지	이이명	고부사(정사)/노론	잡지(17화소)
	1720	경자연행잡지	이의현	사은정사/노론	잡지+일록
	1721	연행록	유척기	서장관/노론	잡지+연행록 신축년 지수제집 소재 108쪽 역시 잡지 형식
	1723	농은입십기	이의만	정사	일록+잡지+시
	1728	燕行見聞錄	李時恒	사은 겸 진주정사 심수현 중사관	15개의 항목으로 서술(잡지 형태)
	1732	壬子燕行잡지	이의현	사은정사/노론	잡지(형태)
	1737	정사연행일기	이철보	주청서장관	일록+잡지
	1749	연경잡지	유연술	사은사 서장관	잡지
	1754	심행록	유척기	심양문안사	잡지
	1760	北轅錄/서원녹	李義鳳	서장관 이휘중의 아들. 자제군관	표제 있는 잡지:일행방물세페 <b>산천풍속총론</b> 등+일록(*한글본 서원녹)
	1764	심양일록	김종정	심양안행사 (참핵사)	일록+잡지(심양 사정)
	1765	담헌연기	홍대용	서장관 자제군관	기사체(잡지) *참고용

18) 김현미, 『18세기 연행록의 전개와 특성』, 2007, 혜안, pp.142-148.

19) 본 표의 대상 작품들은 임기중 편, 연행록DB 총간 증보판([www.krpia.com](http://www.krpia.com))에 수록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1773	연행록	엄숙	동지 부사	일록+잡지(별단,전말)
1777	연행기사	이압	동지 겸 진주부사	일록+잡지(문견잡기 상,하)+시
1778	북학의	박제가	검서	잡지 *참고용
1780	열하일기	박지원	정사 자제군관	필기체(일록 중 기, 록, 잡지가 포함) (*참고용)
1783	농은유고 소재入瀋記 上·中·下	李田秀	성절 겸 문안정사 반당(중형 이만수와 함께)	행중좌목+범례+일록+잡지(궁실 의복 등)+시
1784	燕京編	姜世晃	진하사은부사	시+ 잡지(표제가 있음).
1784	觀海錄	金照 (1754-1824)	사은사행의 일원	“아름답고 청아한 소품집”이라는 평가. 60여 개의 짙막한 이야기들 民俗雜記가 있음(*觀海錄(표제))

현전하는 18세기 연행록 중 풍속 서술과 관련 있는 서술 양식인 잡지 양식의 한문 산문 연행록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24개의 18세기 연행록이 잡지형식으로 서술됨을 알 수 있었다. 이들 잡지 형식의 연행록들은 내용상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섞여있고 그 중 풍속에 관한 것도 포함되어 있으나, 그들이 과연 어떠한 맥락과 관점에서 이들을 소개했는지는 일목요연하게 알 수 없다. 그런데 이들 중 ‘風俗’을 독립된 표제로 내세워 풍속 관련 일화를 모아놓은 것들이 있다. 이들을 먼저 살핀다면 구체적인 청의 생활상은 물론 그들이 생각하는 풍속의 범주를 확인하고, 이들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앞의 도표면에 색을 넣어 구분한 노가재 김창업의 『연행일기』(1712) 중 「산천풍속 총록」, 그리고 이의봉의 『북원록』(1760) 소재 「산천풍속 총론」, 김조의 『관해록』(1784)에 수록된 「민속잡기」의 기록들을 중심으로 먼저 살펴 그들이 바라본 새로운 세계인 淸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었고 그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서술하도록 하겠다. 이 작업은 이후 나머지 잡지 형태 연행록들에 散見된 풍속 관련 항목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확인하고 서술하는 것으로 심화될 것이다.

## 1. 김창업 「산천풍속총록」 : 풍속으로 알려고 한 청의 다양한 모습

현전하는 연행 기록 중 청의 모습들을 ‘풍속’이라는 표제 하에 다양하게 서술한 최초의 선례는 김창업 『연행일기』(1712) 중 「山川風俗總錄」이다. 연행일기 제 1권에 수록되어 있으며, 「一行人馬渡江數」, 「往來總錄」 등의 기록과 함께 일록의 앞에 붙어서 전체 연행의 규모와 상황을 알게 해 주는 일종의 총괄 서론 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이 기록이 왜 ‘풍속총록’이 아니라 산천풍속총록이 된 것일까? 여러 가지 가설이 있을 수 있지만, 전술한 이전 시기 대명 사행기록들의 지리지적인 서술 양식 채택에 의하여 ‘산천’이라는 실물 지리의 요소들과 ‘풍속’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른바 인문지리적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기재하려는 사행기록 작자들의 창작법 관성을 따른 것이라고 본다. 산천풍속 총록은 72개 항목의 짙막한 기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기록마다 표제는 달려있지 않다. 그 72개 항목 중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이른바 山川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의주부터 북경까지 33站 이동로의 地勢와 地形,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산과 강에 대한 언급이다.

그 다음은 이른바 風俗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크게 몇 가지 덩어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단 시장[市肆]과 성곽[城郭] / 사람들의 집 구조[屋]와 화장실 유무/ 절과 사당[寺廟]의 존재와 사람들의 신앙 습관이 4번째부터 14번째까지 이야기이다. 이것은 자연지리적인 조건인 ‘산천의 분포’에 이어서, 그 조건 속에 어떻게 ‘성곽’과 시사로 지역을 형성하고 인가를 지어서 사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다음 15번째 항목부터 25번째 항목까지는 주로 淸人과 漢人의 차이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 그런데, 한인과 청인에 대한 총론 격인 서술이 평소 우리가 생각하던 ‘小中華 意識’을 지향하고 청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던 부정적 입장과는 사뭇 다른 것을 특기할 만하다.

淸人は 풍채가 좋으나 文致가 적다. 문치가 적기 때문에 淳實한 자가 많다. 漢人は 이와 정반대이며, 남방 사람은 더욱 경박하고 교활한데 그렇다고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청인이 중국에 들어온 지도 오래되었으며, 황제 역시 文을 숭상했기 때문에 그런 풍속이 많이 사라졌다.<sup>20)</sup>

이것은 산천 풍속 총록의 15번째 항목으로서, 漢人과 淸人의 외모와 기본 性情을 설명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종족을 전제하여 그들의 특징을 규정짓는 것은 반드시 바람직한 태도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청인들의 풍채는 크고 사람됨은 꾸미는 것을 하지 않아서 순박하고 진실되며, 한인은 이에 반대된다는 설명은 오히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종적 혹은 부족적인 고정관념을 再考하게 하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항목의 후반에서는 청인이 중국에 들어온 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해석도 지금 청의 실상과 반드시 들어맞는 것은 아님을 설명하여, 오히려 이러한 새로운 해석보다는 기존의 반청의식에 의거한 구분심을 지속하고 싶은 마음이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후 계속 나오는 당대 실상 관찰의 결과로 본 淸人과 漢人의 衣服, 여인들의 치장 여부, 가마 탑승 여부, 漢女/胡女의 대인 태도 차이 등의 청인/한인의 생활 양식 차이 항목들을 서술한 것이다.<sup>21)</sup>

이러한 청인/한인 구분은 이어 26번째 항목에서 28번째 항목까지 이어지는 남자/여자의 생활 양상 구분으로 이어진다. 여기에서는 “여자는

20) 김창업, 『山川風俗總錄』, 『노가재 연행일기』 권1, “淸人貌豐偉,爲人少文少文,故淳實者多. 漢人反是, 南方人尤輕薄狡詐, 然或不盡然.淸人亦入中國久, 皇帝又崇文, 故其俗寢衰矣.”

21) 김창업, 『산천풍속총록』, 『노가재 연행일기』 권1, “한족 여인은 분을 바르지만, 호녀(胡女: 청나라 여인)는 바르지 않는다. 전에 듣기로는 한족 여인은 남편이 있으면 아무리 늙어도 모두 화장을 하고 꽃을 꽂는다고 하였는데, 지금 보니 다 그렇지 않았다. 관외(關外)의 여인 중에는 미인이 많았다. 남녀의 복장은 사치한 이나 검소한 이를 막론하고 모두 검은빛을 숭상하는데, 한족 여인은 그렇지 않아 푸르고 붉은 바지를 입은 자가 많았다. 부자로 사치한 자 외에는 다 굵은 베를 쓰며, 복경도 마찬가지로였다. 여자의 옷은 매우 가난한 자 외에는 모두 비단을 입으며, 시골도 마찬가지였다.”

비단옷을 입고 분을 바르고 꽃을 머리에 꽂는데, 그 남편은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얼굴마저 누추하여 얼른 보면 종으로 보인다. / 모든 힘든 일은 다 남자가 담당한다. 수레를 몰고 밭을 갈고 나무를 지는 일 외에도 물의 운반, 쌀 찧기, 씨뿌리기에서부터 심지어 배를 짜고 바느질하는 일까지 모두 남자가 한다. 여자는 드물게 문밖에 나오며 하는 일은 신바닥을 꿰매는 일에 불과할 뿐이다. 시골 여자는 간혹 곡식을 까불거나 밭짓는 일 등을 직접 하기도 하는데, 시장이나 가게에 오가는 여자들은 결코 볼 수가 없다.”<sup>22)</sup>와 같이 朝鮮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남녀의 역할을 서술하고 있다.

이후 29번째 항목부터 30번째 항목은 喪禮에 대한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주자가례를 따르는 복제와 漢人/淸人 간 장례 방법 차이와 같은 원칙과 실상의 서술과, 실제로 본 바 길에 노출된 관(棺) 등 客死者의 실상을 풀어내되<sup>23)</sup> ‘참으로 실망스럽다’, ‘이러면 안 된다’는 해석은 없는 것이 특징이다. 冠-婚-喪-祭禮 등의 생활 의례로 분류되는 서술 후에는, 31번째 항목부터 45번째 항목까지 ‘식생활’에 관련되는 진술들이 배치된다. 즉 아침저녁으로 청나라 사람들이 흔히 먹는 것과 식사 방법, 반찬의 빈부차이, 수저의 사용 여부, 차와 담배 같은 기호품 소비, 식탁과 의자 같은 식사 시 사용 가구의 소개 등이 이어지고, 연로에서 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청나라 사람들이 먹는 채소·생선·술·장류의 소개가 이어진다. 여기서 특기할만한 것은 39번째 항목부터 41번째까지 총 3항목은 노가재가 직접 먹어본 것 중에 인상이 깊었던 음식의 소개이다.

22) 김창업, 위의 글, “女子被綺羅, 塗粉簪花, 而其夫衣服敝惡, 面貌醜陋, 乍見者皆認爲其奴, 凡大小事役, 男子悉任其勞, 驅車耕田負薪之外, 運水春米種田, 至織布裁縫等事, 亦皆男子爲之, 女子則罕出門外, 其所爲不過縫鞋底而已, 村女則簸穀炊飯等事, 或自爲之, 店房中絕不見女人往來.”

23) 김창업, 위의 글, “성읍이나 촌락이 변화한 곳의 들판에는 노출된 관(棺)이 많다. 어떤 것은 바깥에 벽돌을 쌓고 석회로 발랐으며, 어떤 것은 다만 돌무더기로 그 위를 눌러 덧대로 씌게 한 것도 있다. 이것은 가난해서 장례할 땅이 없거나 아니면 객지에서 죽어 귀장하지 못한 자들인데, 결국은 저절로 사그라진다고 한다.”

이른바 ‘柔薄兒’란 우리나라의 상화떡처럼 밀가루도 만든 것인데 우리나라의 만두처럼 가장자리가 꾸글꾸글하다. 이것은 옛 만두로 돼지고기와 마늘을 다져서 만들며 그곳의 떡 중에서 가장 맛이 있었다. 또 밀가루로 둥근 빵을 만든 뒤에 돼지기름이나 양기름에 튀기면 흡사 우리나라의 강정처럼 가볍고 연하여 씹기 쉽다. 진품은 설탕 가루에 버무려서 만들었다. 품질의 좋고 나쁜 차이는 있지만 가게에서 파는 것은 모두 이런 따위이며 흰떡은 볼래야 볼 수 없었다.

寧遠衛나 豐潤縣에는 모두 동치미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동치미 맛과 비슷하였으며, 풍운현의 것이 더 나왔다. 북경의 通官 집에서 만든 김치를 보니, 역시 우리나라의 방법을 모방한 것인데 그 맛이 꽤 좋았다. 이 밖에 갖김치, 배추김치는 가는 곳마다 있었는데 맛이 조금 짝지만 가끔 맛이 있는 것도 있었다. 또 갖가지 장아찌도 있었는데 맛이 좋지 않았다.

동팔참의 썩맛은 우리나라의 살찐 썩 못지 않았다. 小黒山, 十三山에는 메추리가 매우 흔했으며 大陵河·小凌河는 감동젓[甘冬醃]이 맛도 좋고 흔하였다.<sup>24)</sup>

이것을 보면, 직접 경험한 타국의 식품을 판단하고 서술하는 기준은 모두 자신이 자국에서 먹어왔던 것과의 유사성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여기까지를 보면 서술 항목의 분류상 인간생활의 기본 양식인 住-衣-食을 모두 아우르고 있음을 알 수 있어 그가 생각하는 풍속은,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이 ‘의식주’라는 기본 양식을 어떤 방식으로 행해 내고 하나의 문명과 문화를 구성하는 기본 의례인 ‘관혼상제’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는가 하는 범위로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47번째 항목부터 61번째 항목들은 앞서 설명한 부분처럼 공통의 상위분류 기준을 명확하게 지정하기 어렵고, 성글게 분류를 짓자면 생활에 필요한 도구들에 대한 것들이라 할 수 있다. 즉 그릇/말안장/술/물

24) 김창업, 앞의 글, “所謂柔薄兒, 以麵造, 似我國霜花, 而皺其縫, 似我國饅頭, 此蓋古之饅頭也, 其啗豬肉和蒜爲之, 彼處餅餌中味最佳, 又以麵作團餅, 熬以豬羊油, 輕脆易碎, 亦似我國江丁之狀, 其珍者和糖屑而爲之, 雖有精粗美惡之不等, 店肆所賣, 大抵皆此類, 其粉餛, 絕不見, 寧遠衛及豐潤縣, 皆有冬菹, 如我國之味, 而豐潤尤勝. 北京通官家所造沈菜, 亦倣我國法, 其味頗佳, 此外芥沈菜, 菘沈菜, 到處有之, 味稍鹹, 而往往有佳者, 亦有各樣醬瓜, 而味不好, 東八站雉味, 不遜我國膏雉, 小黒山, 十三山鷓鴣極賤, 大小凌河甘冬醃味, 佳而賤.”

그릇/말(斗)/작두/병장기/방아/수레에 대한 짝막한 서술이 나와 있고, 밥을 어떤 곡식으로 주로 지어먹는지, 무슨 과일이 나는지를 단편적으로 언급한다.

풍속 총록의 마지막 부분을 주로 담당하는 항목의 분류는 ‘다양한 동물들’이다. 62번째 항목부터 70번째 항목까지 동물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와 있다. 이들은 단편적으로 갑자기 소개되지 않고, 60번째 항목에서 수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수레에 매는 말은 흔히 준마가 많으며, 그렇지 않으면 노새다. 노새의 힘이 세기 때문이다.(이하 생략)”<sup>25)</sup>이라고 하여 동물들을 소개할 연결고리를 만들고, 그 이후 노새에 대한 항목 서술 이후로 말, 소, 낙타, 돼지, 닭, 개 등의 현지 동물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들은 거의 가축이며 집안에서 사람의 운송과 수레 끌기, 밭 갈기 등의 일을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렇기에, 이들 동물의 소개 항목 사이에 청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있으며, 농사는 어떻게 짓는가 하는 내용이 단편적으로 언급되기도 한다.

이후 산천풍속 총록의 대미를 장식하는 71번째와 72번째 항목은 사냥하는 사람들의 옷차림에 대한 것과 길 가는 중에 보지 못했던 노인들에 대한 것이다.

연경에 들어갈 때는 연도에서 노인을 본 적이 없었는데, 돌아올 때는 문 앞에 나와 앉은 노인이 가끔 보였다. 추울 때에는 깊숙이 들어 앉아 있다가 봄이 되니 비로소 나온 모양이었다. 그런데 길에 왕래하는 노인은 본 일이 없다. 사행 중에 70이 넘는 자가 어느 곳에 갔는데 주인이 나이를 묻고 또 자식이 있느냐고 묻고는 얼굴에 침을 뱉더라는 것이다. 비루하게 여겼던 모양이다.<sup>26)</sup>

이 항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앞서 제시한 거의 많은 항목이 기록을

25) 김창업, 앞의 글, “駕車率多駿馬, 否皆騾, 騾力大故也.”

26) 김창업, 앞의 글, “入去時, 沿路絕不見老人, 比至歸時, 出坐門前者, 往往而在. 蓋天寒深蟄, 至春始出也. 然道上絕不見老人往來, 行中有年過七十者至一處, 主人問其年, 又問子有無, 卽唾其面, 蓋鄙之也.”

옳긴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체험하고 관찰한 것임을 다시 한 번 환기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항목이 이때까지 노가재가 서술한 총 72개의 화소를 상호 연결하면서 이 글을 하나의 완결된 구조로 독자에게 인식시키는 역할까지는 감당하지 못한다. 오히려 이때까지 대분류로 묶일 수 있었던 영역에 연결되지 않는 섬 같은 인상마저 준다. 이를 통해 결국 현전 개인 저작 연행록에 18세기 최초로 소개된 '풍속' 표제의 잡록 글은 이전 시기 대명사행문학에서 소개되었던 상례와 지리지형적인 요소를 포괄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양식인 의-식-주 영역을 고르게 소개하면서도, 이전시기 별단체 잡록처럼 나라의 경영을 위한 정보로서 작가의 목표를 삼지는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 2. 이의봉 「산천풍속총론」과 김조 「민속잡기」의 경우 : 풍속 범주의 지속과 재편성

1712년 작성된 김창업의 산천풍속총록 이후, 연행록 종합 DB 소재 연행록에서 풍속 표제 하에 서술된 기록은 1760년 서장관인 아버지 이휘중의 자제군관으로 간 이의봉에 의하여 지어진 『북원록』과 1784년 연행의 수행원이었던 김조(金照)가 쓴 소품산문집 『관해록』<sup>27)</sup> 두 책에서 발견된다. 이는 각기 18세기 중반과 후반에 지어진 기록들이라, 18세기 전체에 걸쳐서 어떻게 풍속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는가를 균형 있게 살필 수 있다.

일단 이의봉(李義鳳, 1733~1801)<sup>28)</sup>의 1760년 연행록인 『북원록』 소재

27) 김조의 연행록은 원래 실명(失名) 연행록으로 분류되다가 김영진의 「김조의 연행록 『관해록』 연구」(『한국한문학연구』 제59집, 한국한문학회, 2015)과 최식의 논문, 「텍스트로 바라본 연행(燕行)과 연행록(燕行錄) - 연행(燕行)의 체험(體驗)과 향유(享有)」, 『대동문화연구』 88권,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4, pp.445-493에서 그 제목이 비정되었기에 본고에서도 김조의 관해록으로 쓰기로 한다.

28) 이의봉의 초명이 이상봉이다. 여기서는 이의봉으로 통일하여 쓰기로 한다. 이휘중(李徽中)의 아들. 김영진 「북원록 해제」,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고서해제』, 2005, p.383.

「산천풍속총론」은 총 5책 중 제 1책에 「一行人馬入柵數」, 「方物歲幣數目」, 「往來總錄」 등의 항목과 함께 실려 있고, 일록 형태로 된 권1(11월 2일 출발 - 11월 29일 책문 도착) 앞에 위치하고 있다. 이도 역시 노가재의 경우와 같이 전체 연행의 분위기를 알기위한 서문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의봉의 「산천풍속총론」은 총 118칙의 기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내용 비정과 구성이 노가재 연행일기의 내용과 매우 비슷하다. 확인해 보기 위해서 노가재 산천풍속총록의 제 1항과 이의봉 산천풍속 총론의 제 1항 원문을 대조해보겠다.

①1)自義州至鳳城爲二站,無人家露宿,自鳳城至北京爲三十一站,皆有察院,2)自鳳城至遼東,謂之東八站,3)自九連至鳳城,山秀水明,往往開野,4)自鳳城至狼子山,山高谷深,屢渡大川,過冷井十餘里,5)始出遼野,行四百里,始見邱陵,自是至北京,雖有小小岡隴,大抵皆平野,不復踰峻嶺(김창업)

②1) '自義州,三江以後,至柵門外,空其地不居,以防彼此奸民相通之路,行者皆露宿,2) '自鳳城至十里鋪,謂之東八站,始有人居,3) '自鎮江城,至鳳凰城,山重水復,往往開野,4) '自鳳凰城,至狼子山,山疊有峽,意谷深多危壑,而大長嶺之石頭山,山高洞圓,風水極佳,自此屢涉大川,過阿彌庄,5) '始出遼野,行四百里,始見陂陁,自此至北京,雖有小小丘陵,大抵皆平原,不復踰嶺(이의봉)

①은 김창업의 산천풍속총록, ②는 이상봉의 산천풍속총론이다. 두 책의 제 1항 중 상당 부분이 밑줄을 그은 것처럼 글자가 1·2자 넘나들 뿐 표현과 문장 구성이 거의 같다. 이 부분이 특히 지명을 다루었기 때문에 비슷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이후 이어지는 내용 서술 중 약 50여 항이 비슷한 내용이다. 예를 들어서 북경성 안에는 모래가 많아서 하루 종일 닭 꼬리로 먼지를 털고 있다든지<sup>29)</sup>, 남

29) 김창업, 『노가재연행일기』, “自渡江至北京,地皆沙,自入遼野,往來車馬益多,沙益細,乍風輒揚,狀若烟霧,後人不見前人.關內尤甚,雖無風日,輪蹄間觸,起者如灰揚.着人衣帽面目,頃刻變色幻形,同行幾不能相識.在鬢髮者,拭之不脫,在口中者,漸瀝有聲,至十襲之籠,重封之瓶,亦皆透入,極可怪也,市肆及人家所置器物,用鷄尾帚,不住拂拭,不然,頃刻積至寸許,北京城大街,皆濺水以澀之.”

자가 온갖 힘든 일을 다 하고 여자가 하는 일은 신 밑바닥을 꿰매는 일 정도라든지<sup>30</sup>), 심지어는 노가재가 청 음식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입맛에 맞았다고 하는 유박아가 48년 후인 이의봉의 입에도 맞았다든지<sup>31</sup>) 하는 체험과 관찰의 장이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것은 이의봉이 18세기 초 노가재 김창업이 관찰하고 겪은 결과의 타국 풍속을 기반으로 받아들이고 이러한 기초지식 위에서 자신의 관찰 결과를 더하여 타국 풍속의 관찰을 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러한 기초 위에 이의봉이 독자적으로 첨가를 한 부분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청나라의 군사 제도인 八旗軍에 대한 내용, 그리고 청 내의 각 지역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는가 하는 것, 그리고 청인과 호인의 혼인 제도를 이야기하는 부분을 들 수 있다.

강남인은 蠻子라고 부르니 강남이 荆蠻의 옛 땅이기 때문이다. 산서인은 蚩子(조자)라고 부르니 이익을 잘 취하기를 마치 벼룩이 사람 피 빨아먹듯 해서

이의봉, 『북원록』, “道里較我地極遠, 地又皆沙, 自入遼東往來車馬益多, 沙益細, 乍風輒揚, 狀若煙霧, 後人不見前人, 關內尤甚, 雖無風日, 輪蹄間觸起者如灰, 揚着人面, 頃刻幻形變色, 幾不能相識, 在鬚髮者, 拭之不脫, 在口中者, 浙瀝有聲. 在衣帽者, 近火則燃如染灰紙. 至於十襲之籠, 重封之瓶, 亦皆飛入. 市肆及人家, 所置器物, 用鷄尾簾不住拂拭, 不然霎時積至寸許. 北京城內大街, 皆灑水以泔.”

- 30) 김창업, 『노가재연행일기』, “凡大小事役, 男子悉任其勞, 驅車耕田負薪之外, 運水春米種田, 至織布裁縫等事, 亦皆男子爲之, 女子則罕出門外, 其所爲不過縫鞋底而已, 村女則簸穀炊飯等事, 或自爲之, 店房中絕不見女人往來.”

이상봉, 『북원록』, “凡大小事役, 男子悉任其勞, 驅車, 耕田, 採薪之外, 運水, 春米, 種田以至織布, 裁縫等事, 皆男子爲之, 女子則罕出門外, 其所爲不過縫鞋底而已, 村女則{竹/欺}梁磨粟等事, 或自爲之, 又或有織布, 採薪者, 此則或嫠婦, 孤女也.”

- 31) 김창업, 『노가재연행일기』, “所謂柔薄兒, 以麵造, 似我國霜花, 而皺其縫, 似我國饅頭, 此蓋古之饅頭也, 其啗豬肉和蒜爲之, 彼處餅餌中味最佳, 又以麵作團餅, 熬以豬羊油, 輕脆易碎, 亦似我國江丁之狀, 其珍者和糖屑而爲之, 雖有精粗美惡之不等, 店肆所賣, 大抵皆此類, 其粉餅, 絕不見.

이의봉, 『북원록』, “所謂柔薄兒, 以麵造, 似我國霜花而皺其縫, 又似饅頭, 其餡以豬肉和蒜爲之, 彼人以爲餅餌中最佳品而吃之.”

다. 산동인은 咯子라고도 하고 또 夸子(과자)라고도 하니 健步가 마치 해를 쫓는 夸夫같이 때문이다. 북경인은 油子라고 하니 세상 물정에 닳고 닳아서 기름처럼 미끄러워 그런 것이다. 청인은 靛子(단자)라고도 하고 만주를 또 旗下라고도 하니 八旗에 소속되어 있어서다.<sup>32)</sup>

혼인 제도는 청인들은 저물녘에 예를 행하고 한인들은 낮이 되어 예를 행한다. 또 혹 친영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자는 채색한 가마를 타는데 그 만들이 우리나라 상여 같다. 화장대와 의감 같은 혼수들은 앞세우고 가고, 남자는 태평거에 올라 따라서 간다.<sup>33)</sup>

전술했듯 18세기 초기 김창업이 생각하고 소개했던 풍속의 범주와 요소들을 충실히 받아들인 이의봉의 ‘풍속’ 서술 내용에서 특기할 것은 두 번째 예문이다. 이전 시기 노가재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행동양식인 의-식-주 방면에서 자신이 관찰한 바의 요소들을 고루 소개하였지만 하나의 문명과 문화를 구성하는 기본 의례인 ‘冠婚喪祭’의 영역 중 상례밖에 소개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의봉의 경우 ‘혼례’에 대해 접근하여, 그가 생각한 풍속의 지평이 넓어졌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첫 번째 인용한 중국의 각 지방 사람들의 호칭에 대한 일화에서 알 수 있듯 청의 민족 구성을 漢人/胡人の 이분법으로 고정하던 데서 進一步해 각 지역 사람들로 세분화하여, 中華/야만- 彼/我的 구도에서 조금은 벗어난 시도를 한 것도 특기할 만하다.

김조의 1784년 연행기록인 『관해록』은 서술 양식상 특이한 위치를 점한다. 연행록 창작의 전통에서 그동안 이어졌던 日錄體 散文도, 聞見別單類의 기록도 아니고 60여 개의 짙막한, 표제 있는 산문에 圈點과 批點

32) 이의봉, 『북원록』, “江南人謂之蠻子, 江南爲荊蠻故地也, 山西人謂之蚤子, 爲善取利如蚤蟲之嘍人也, 山東人謂之咯子, 亦謂之夸子, 爲健步如逐日夸夫也, 北京人謂之油子, 爲練習物情如油之滑也, 清人謂之靛子, 亦謂之滿洲, 或謂之旗下, 以隸八旗也.”

33) 이의봉, 『북원록』, “婚姻之制, 清人迫昏行禮, 漢人當晝行禮. 又或有親迎者, 女乘彩輿, 制似我國靈輻, 以粧奩椅龕之屬, 前排而行, 男子惟乘大平車, 踵而行.”

이 표시되고 주석이 가필되어 있는 일종의 비평 대상 텍스트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34)</sup> 현전하는 18세기 개인 저술 산문 연행록에서 마지막으로 민‘속’(俗)이라는 표제 하에 기록된 것은 이 중의 한 항목인 ‘民俗雜記’이다.

일단 18세기 전기·중기에 기록되었던 ‘산천풍속’과는 제목이 달라졌다는 것을 특기할 수 있다. 풍속이라는 말에서 왜 민속으로 바뀌었는지는 김조 관해록의 전체 구성을 보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소개하기로 한다.

○ 露次○ 柵門○ 鳳凰城○ 會寧嶺○ 靑石嶺○ 遼野○ 舊遼東白塔○ 瀋陽○ 醫巫閭山[附十三山]○ 松杏○ 寧遠衛[附嘔血臺]○ 祖大壽牌樓○ 姜女祠○ 吳三桂將臺○ 山海關[附澄海樓]○ 五峯山○ 永平府○ 榛子店○ 高旅堡○ 玉田○ 薊門烟樹○ 漁陽橋○ 通州○ 東嶽廟○ 皇城[附安定館]○ 宮城○ 大市衛○ 琉璃廠○ 太和殿○ 萬佛殿○ 大雄殿○ 極樂世界○ 五龍亭○ 太學○ 石鼓○ 柴市○ 天州堂■書○ 玉河記夢○ 食品○ 衣制○ 車馬○ 畜物○ 騎射○ 傷市○ 墳制○ 民俗雜記○ 歸路○ 白澗松○ 薊州獨樂寺臥佛○ 夷齊廟○ 首陽山○ 泥濘○ 太子河看月○ 留柵○ 安市城○ 出柵○ 天淵亭劍舞○ 郭山四月碑○ 黃州燈夕○ 延恩門志喜 (밑줄 및 진한 글씨 필자)

앞서 소개한 것과 같이 총 60개의 표제가 붙은 짤막한 글들 중에서 민속잡기는 46번째에 위치하고 있다. 그런데 인용한 전체 구성 중 밑줄로 표시한 것 같이 민속잡기는 기존에 ‘풍속’의 세부 제목으로 위치했었던 ‘食品, 衣制, 車制, 畜物, 墳制’ 등과 나란히 서있기에, 이것들을 제외하고 과연 어떤 것을 ‘민속’으로 간주하고 다루었을 것인가가 문제된다.

민속잡기는 30개의 짤막한 쪽 글들로 되어 있는데, 각 쪽 글들은 책문-요동-봉성-성경-황성 등의 지명이 먼저 제시되고 그곳의 主產業은 어떤 것인지, 그곳에서 주목하여 본 바와 겪은 일들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구성방식으로 전개된다. 몇 부분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34) 최식, 앞의 논문, 2014, pp.458-459.

동팔참 농가의 부녀들은 혹 호미를 들고서 나와서 밭가는 것을 도와도 신발을 벗지 않으며 속옷을 걷지 않는다. 대개 연경의 부녀들은 모두 별 일 없이 쉬며 베틀이 어떤 물건인지 알지도 못하고, 혹 밥을 지으려고 해도 남자들이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단 화려하게 꾸미고 화장하며 담배를 피우며 날을 보낸다. 종종 문에 기대어 사거가 지나가는 것을 보곤 하는데 손이 신발 밑바닥을 꿰뚫 때도 있다.(후략)<sup>35)</sup>

그 시장 거리의 아이들은 장난치고 이리저리 뛰면서 사시사철 물론하고 다투듯 연을 날리는데 연의 제도가 우리나라와는 다르다. 인물이나 새 짐승의 모양으로 만든 것이 많고 연 가운데 구멍을 매우 작게 뚫어서 실로 매달아 바람을 따라 날려 보내면 다시는 기울거나 곤두박질쳐 떨어지지 않으니 그 바람의 힘이 심한 까닭이 아니겠는가. 열레 또한 우리나라와는 다르니 모양이 북채같다.<sup>36)</sup>

이렇게 지명의 제시와 그곳에서 관찰하고 겪은 일 중심으로 ‘민속’을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민속의 양상은 ‘의식주’로 설명되는 일반적인 삶의 양식 서술의 태도와는 또 다르게 그 곳의 ‘사람들’에 대한 서술이 주를 이룬다. 또한 ‘자신’이 경험하였다는 요소가 불거지기에 이전과 다르게 자신의 감상을 비교적 비중 있게 서술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그렇기에 각 지방에서 느낀 그 지역 사람들의 인상에 대해서 성격이 난폭하다든지, 용모가 예쁘다든지, 목소리가 듣기 좋다든지 하는 언급을 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사람들의 미추에 대한 감상평이 적잖이 드러나고 있어<sup>37)</sup>, 민속 개념에 대한 김조의 ‘人物/人情 중심’ 지향, 자신의 감상 표출 지향을 확인할 수 있다. 감상과 감정의 표출이라는 면에서는 이 글의

- 
- 35) 김조, 『관해록』, “東八站, 農家婦女, 或持鋤鋤, 出而助田作, 不脫鞋襪, 不捲裾襠, 大抵燕地婦女, 皆游閑無事, 不知紡車織杼之爲何物, 而或執炊爨, 亦多男夫代勞, 但靚粧麗飾, 吃煙度日, 往往倚門觀使車之過, 手或縫鞋底. (후략)”
- 36) 김조, 『관해록』, “其市童街兒, 狡獪跳擲, 競放風鳶, 無論四時, 鳶之制與我東異, 多作人物鳥獸形, 鳶之中竅甚小, 而以繩繫其中竅, 從風而放, 不復欹斜倒落, 毋其風力甚故耶! 線車亦異我東, 狀如鼓桴.”
- 37) 김조, 『관해록』, “狼子山, 改命娘子山, 地雖遐僻, 婦女多殊色, 漢人絕稀, 其穿籬遠牆, 花朵相暎者, 皆胡女也, 山海關內, 男子皆驍健, 善騎射, 女子眉目皆明麗, 時有動人者, 凶奴失祈連, 則美色盡矣, 爲清人計者, 寧失天下, 不可失狼子山.”

저자인 김조가 가졌던 문체적 특징, 즉 서정성 넘치는 소품문적 서술 때문인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sup>38)</sup> ‘풍속’이라는 주제 면에서 이 경향을 생각해 봤을 때 이러한 자발적인 감상의 기준점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풍습과 같은 요소에 대한 자신의 경험치 이므로, 이는 역으로 그간 주목되지 못하던 우리나라의 풍속, 풍습과 같은 요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또 하나 특기할 것은 연경에서 본 몽골 왕과 回回國사람들에 대한 언급<sup>39)</sup>을 하고 있어, 청이라는 다른 나라의 문화에서 만나는 또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통해 타자에 대한 인식의 지평이 넓어짐을 알 수 있다.

#### IV. 결론

이상 18세기 對淸使行의 결과로 지어진 개인적인 (한문) 散文燕行錄 속에 소개된 타국의 모습들이 ‘풍속’이라는 표제 하에 집적되어있는 것을 읽어보고 풍속의 범주와 인지 양상의 의미를 찾아보았다. 이러한 작업은 文獻群이라는 이름 아래 다양한 성격의 텍스트를 포괄하고 있는 연행록을 ‘타문화 관찰 및 체험 텍스트’라는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연결고리로서 풍속을 상정하고, 그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최종적 목표를 위한 것이다.

우선 ‘풍속’이 왜 18세기에 새로운 표제로서 나올 수 있었는가를 사행 기록의 전통 하에서 생각해보기 위해 이전 시기인 對明使行錄 속의 풍속적인 요소가 어떻게 등장하고 무엇을 중심으로 소개되었는가를 살펴

38) 김영진, 앞의 논문, 2015, p.176.

39) 김조, 『관해록』, “蒙古居醫巫閭(=醫巫閭山)之外, 凡四十八部落, 部落最强盛, 人物猙獰, 生得多高鼻深目, 衣帽色尚黃, (후략) 回回國在西邊, 距燕萬餘里, 名爲回子, 其人長身高鼻, 深睛綠瞳, 氈帽如我東戰笠樣, 只有前後簷, 帽頂甚高, 時見市街上, 形跡蹣跚, 若村人入都門, 其稚小者, 只着紙糊帽頂, 館在長安街西.”

본 후, 18세기 연행록 중 잡지 양식의 24개 연행록 중에서 일단 ‘풍속’이라는 개념의 총합적 이해와 전개 양상을 보기 위해서 풍속 표제 서술들을 분석하였다. 대명 사행 문학의 전통에서 형성된 풍속 요소의 서술 방식을 임금께 복명하기 위한 聞見別單體인 雜錄 형식이었으며, 내용적으로는 문화적인 자부심을 표출하기 위해 언급된 ‘상례’의 발견을 주 내용으로 삼고 지리적 요소와 긴밀히 연결된 풍속의 서술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노가재 김창업의 『燕行日記』(1712) 중 「山川風俗總錄」, 그리고 이의봉의 『北轅錄』(1760) 소재 「山川風俗總論」, 김조의 『觀海錄』(1784)에 수록된 「民俗雜記」의 기록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바라본 새로운 세계인 청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었고 그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폈다. 우선 노가재의 「산천풍속총록」에 수록된 72개의 항목들은 이전 시기 대명사행문학에서 소개되었던 상례와 지리 지형적인 요소를 포괄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양식인 의-식-주 영역을 고르게 소개하면서도, 이전시기 별단체 잡록처럼 나라의 경영을 위한 정보로서 작가의 목표를 삼지는 않았다. 이의봉의 「산천풍속총론」 속 118개의 항목들은 18세기 초 노가재가 관찰하고 겪은 결과의 타국 풍속을 기반으로 받아들이고 이러한 기초지식 위에서 자신의 관찰 결과를 더하여 타국 풍속의 관찰을 했다. 1784년 연행의 결과로 「민속잡록」을 남긴 김조는 30항의 기록 중에서 일반적인 ‘풍속’이 아니라 인물들을 중심으로 여정에 따른 자신의 경험과 관찰에 근거한 ‘민속’의 항목을 서술하였고, 이 속에는 자신의 감정과 감상이 보다 많이 투영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參考 文獻>

- 김 조, 『관해록』, 임기중 편, DB 연행록 총간 증보판(www.krpia.com)
- 김창업, 『연행일기』 임기중 편, DB 연행록 총간 증보판(www.krpia.com)
- 이민성, 『경정집 속집』(한국문집총간 76집)
- 이의봉, 『북원록』, 임기중 편, DB 연행록 총간 증보판(www.krpia.com)
- 황여일, 『해월집』(규장각 소장본)
- 황 진, 『서담유고(西潭遺稿)』(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 김영진, 「북원록 해제」,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고서해제』, 평민사, 2005.
- \_\_\_\_\_, 「김조의 연행록 『관해록』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59집, 한국한문학회, 2015.
- 김지현, 「조선시대 대명 사행문학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3.
- 김현미, 「18세기 연행록 속의 병자호란」, 『국어국문학』 140집, 국어국문학회, 2005.
- \_\_\_\_\_, 『18세기 연행록의 전개와 특성』, 혜안, 2007.
- 박성규, 「고려, 조선의 건명사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최 식, 「텍스트로 바라본 연행(燕行)과 연행록(燕行錄) - 연행(燕行)의 체험(體驗)과 향유(享有)」, 『대동문화연구』 88권,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4.

## Abstract

*Recognition and category of the elements of 'customs' in yeonhangrok(燕行錄) in the 18th century / Kim Hyun-mee\**

This writing was written to examine the concrete contents and development of 'customs(風俗)', which is one of major contents of yeonhangrok(燕行錄) existing as important cultural literature(文獻群) in the late Joseon Dynasty because 'customs' are important subjects of observation and description to the authors yeonhangrok that basically has the situational-contextual characteristics of the records of experience of other cultures while being a contextual element that makes those that read yeonhangrok have continuous interest. Therefore, 'customs' are expected to become a connecting ring that would enable analyzing yeonhangrok that contains texts in diverse natures under the name 'literature' with a unity 'text of observation and experience of other cultures.'

First, to consider why 'customs' appeared as a new tile in the 18th century based on the tradition of delegation records, how customary elements appeared in the 'records of delegation to Ming' that were written earlier and mainly what were introduced were examined. Thereafter, to se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customs' and how the concept developed in 24 pieces of yeonhangrok in the form of magazines out of yeonhangrok written in the 18th century, descriptions under the title customs were analyzed. The format of descriptions of the elements of customs formed through the tradition of the literature regarding delegations to Ming was miscellanea in the form of 'separate records of experience' for reporting to the king and the contents were the discovery of conventional practice mentioned to show off cultural pride and customs closely connected to geographical elements.

---

\* AKS center for traditional Korea Research, full-time researcher / kyntoo@hanmail.net

Centering on the 'miscellaneous records of folklore' contained in three records that gathered short story narrations under the title 'custom' out of yeonhangrok written in the 18th century, that is, 「Sancheon Pungsok Chongrok」 in the 『yeonhangilgi』 of Noh Ga-Jae and Kim Chang-Eop(金昌業)(1712), 「Sancheon Pungsok Chonglon」 in the 『Bukwonrok』 of Lee Sang-Bong(李商鳳)(1760), and the 「miscellaneous records of folklore」 contained in the 『Gwanhaerok』 of Kim Jo(金照)(1784), concrete shapes of the new world 'Qing' as seen by them and how the shapes changed over time were examined. First, 72 items contained in 「Sancheon Pungsok Chongrok」 of Nogajae included conventional practice and geographical and topographic elements and evenly introduced the areas of food, clothing, and shelter that are basic ways of human life but the objective of the author was not information for management of the country unlike the separate miscellaneous records in the pervious period. The 118 items in the 「Sancheon Pungsok Chonglon」 of Lee Sang-Bong are descriptions of observation of other country's customs based on other country's customs observed and experienced by Noh Ga-Jae in the early 18th century added with the results of observation by Lee Sang-Bong. Kim Jo, who left miscellaneous records of folklore as a result of delegation in 1784, described items of 'folklore' based on his experience and observation during the trip rather than general 'customs' in 30 record items and projected his emotions and sentiments considerably in the records.

**【Key words】** custom, yeonhangrok in the 18th century, food, clothing, and shelter, the four ceremonial occasions, separate records, yeonhangilgi of Noh Ga-Jae, Bukwonrok, Gwanhaerok, experience in other culture

투고일 : 11월 23일, 심사완료일 : 12월 7일, 게재확정일 : 12월 12일